

직물면에 골이 지게 짠 직물

경사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랑을 코드라고 한다. 코드는 실보다 굵고 로프보다도 가는 끈과 같은 것도 있다. 코듀로이(corduroy)는 경사 방향의 이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무이다. 그러나 이것은 윈터 코튼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추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옷감의 색상 무늬는 세로줄무늬(스트라이프)가 압도적으로 많다. 변화가 풍부한 것은 세로 이랑이다. 그 중에서 여름철 세로 이랑으로써 눈에 띄는 것은 헤어코드라던가 코드레인이다.

론이나 포플린 바닥의 여기 저기에 굵은 실이 2~4줄 인접한 경사를 배열하고 있는 것이 헤어코드이다. 굵은 실이 이라던가 인접을 위사에도 배열하여 격자상으로 나타낸 것도 있다. 코드레인이라고 함은 청색과 백색 또는 적색과 백색의 세로줄무늬 재킷을 떠올릴 것이다. 파랑이던지 빨강의 이랑을 나타내는 굵은 실 또는 인접과 백색4사(표백사)를 여러 올씩 배열한 경사에 백색의 위사를 위입하여 짜고 있다. 소프트 한 색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여 다른 색의 실과 실을 교직하여 생긴 색을 샘브레이 칼라라고 한다. 헤어코드도 코드레인도 코드적이다. 모두 상쾌한 피부 촉감과 약간 딱딱하고 팽팽한 바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 땀이 피부에 붙지 않고 상쾌한 감이 있다. 피케에는 가로 이랑의 것도 있다. 세로 이랑의 피케와 구분하여 경피케라고 부른다. 옛날 이름은 베드퍼드코드이다.

* 베드퍼드코드(Bedford cord): 직물 면에 새로 골이 지게 짠 직물,

피케(pique)라고도 하나, 본래의 피케와는 구별이 된다. 피케의 골은 가로 방향이나 마음모꼴의 무늬로 짜여진 것이다. 골을 높게 나타내기 위하여 꼬임이 적은 굵은 실을 심으로 넣기도 한다. 주로 면이나 레이온으로 만들며, 하복, 모자, 운동복 등에 이용된다.